

高麗時代 刊行의 佛經版畫 研究

A Study on the Buddhist scripture published in the Goryeo Dynasty

석 혜 영(Hae-Yung Suk)*

〈목 차〉

I. 머리말	2. 12세기
II. 고려시대 불교 인쇄 문화	3. 13세기
III. 간행시기별 불경 판본	4. 14세기
1. 11세기	IV. 맷음말

초 록

본 연구는 고려시대 제작된 불교 경전에 포함된 판화와 관련된 개괄적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고려시대 간행된 판화본 중 해인사 소장 대장경에 포함된 것은 『華嚴經』周本 80점(5점 중복), 晉本 12점을 비롯하여 『豫修經』3종 44점과 송광사에 『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의 판화 1점이 현전한다. 또한 초조대장경 중 현재 일본 남선사에는 소장된 『御製秘藏詮』권1~10까지에는 50개의 판화가 현전하며, 이것은 권11~20까지 중복해서 사용 되었으며, 권21에는 佛傳圖 형식의 판화가 3점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 본고에 다룬 고려시대 간행된 불경 판화는 12종 19점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불경 판화의 모티브를 차용하면서도 고려인들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도상을 만들어 내었다는 점과, 특히 조선 초기 제작된 다양한 불경 판화의 원형을 제공해주고 있어 그 시원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키워드: 高麗, 佛教, 經典, 版畫, 14世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overall situation related to the engravings included in Buddhist scriptures produced in the Goryeo Dynasty. at the wooden board in Hae-in Temple(海印寺)'s 『Hwa-eomgyeong(華嚴經)』are Ju-bon(周本) 80sheets(5sheets duplicates), Jin-bon(晉本) 12sheets, and 『Ye-sugyeong(豫修經)』44sheets, and There is a print of 『cheon-tae-eun-sa-han-san-seub-deug-si-jib(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at Songgwang Temple(松廣寺). Also 『Uhjebijangjeon(御製秘藏詮)』included in the Koryo period Chojo Tripitaka is the Emperor Taizōng of Sòng Poetry collection owned by Japan's Nanzanji(南禪寺). In each book from volume 1~20(volume17 is not there), there were 5 sheets of engravings and most of them are located in the same locations (1,5,9,13,17). And than 50 engravings that are contained in volume 1~10 are used repetitively in volume 11~20. In Volume 21 that corresponds to appendix, 3 engravings, This has a big value in that this is a Booljeondo(佛傳圖) of the fastest period that was made in Korea.

In Chapter 3, we looked at the publications of the Goryeo Dynasty by century. We have confirmed that among 19 types of the 12 kinds of printed materials.

Keywords: Goryeo Dynasty, Buddhism, scripture, a woodcut print, 14th century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shy7694@hanmail.net)

•논문접수: 2018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8년 11월 27일 •제재확정: 2018년 12월 13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373~404,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12.373]

I . 머리말

고려시대에는 통일신라를 잇는 불교문화의 꽃을 피운 시기로써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불교의 종교적인 성장과 발전 또한 진일보한 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출판인쇄문화의 무궁한 발전은 活字의 출현과 두 번에 걸친 大藏經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빛을 발한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고려시대 간행된 불교 경전에 포함된 판화와 관련한 개괄적인 현황을 세기별로 살펴보고, 각 경전별로 그 底本이 될 만한 中國의 판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初雕·再雕大藏經을 비롯하여 현재 海印寺에 소장된 자료와 더불어 고려시대(11~14세기) 제작된 자료로 한정하였으며, 해당 논고에서는 도상이 포함된 다라니와 만다라, 진언류 등은 제외하였다. 이를 자료와 관련하여서는(남권희 2017, 323~363) 이미 최근의 신출자료(1375년 제다라니경 변상판화)까지 포함하여 발표된 바 있어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대장경 판화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상당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며(권지연 2004, 1~43; 김자현 2011, 35~68; 박은경 2013, 71~107), 일부는 학위논문으로도 발표되었다. 따라서 이들과 관련한 자료들 가운데 언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을 2장에서 먼저 간략히 소개하면서 고려시대 인쇄 문화에 있어서 불경 판화가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 3장에서는 대상 자료들을 세기별로 나누고, 기술순서는 경전명의 가나다순, 동일 경전일 경우 연도순, 동일 연도의 자료는 소장처명의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다.

II . 고려시대 불경(불교 문헌)인쇄 문화

고려시대에는 두 번에 걸쳐 대장경이 완성되기도 하였으며, 많은 경전이 각지에서 유입되어 인쇄문화의 꽃을 피웠다. 판화의 시작은 곧 印章의 의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變相이라는 의미에서의 판화는 경전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당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함으로써, 대중교화와 포교를 위해 일찍이 출현한 것이 사실이다. 고려시대에는 목판을 사용한 판화 이외에도 금과 은을 사용하여 공덕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寫經’의 제작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개인이 자신의 현세구복을 위해 만든 경우도 적지 않다.

해당 장에서는 앞서 밝힌 바처럼, 고려시대 불경 판화를 언급할 때에 빠질 수 없는 ‘대장경에 포함된 경전류’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합천 해인사 소장의 初雕·再雕大藏經에 포함된 周本·晉本 《大方廣佛華嚴經》(이하 《華嚴經》)을 비롯한 《佛說預修十

王生七經》(이하 《預修經》, 일본 南禪寺에 소장된 초조대장경 《御製秘藏詮》 (이하 《秘藏詮》) 판화에 관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1. 합천 해인사 소장

해인사 법보전에는 周本(80華嚴) 變相 80점과, 晉本(60華嚴) 變相 12점이 남아있어 불경 판화의 연구 및 佛教도상과 畵風 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華嚴經》의 주요 내용은 부처의 세계와 그 곳에 이르기까지 보살이 닦아야 하는 보현행을 나타내며 晉本은 7處 8會 34品, 周本에서는 7處 9會 39品의 구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殷博 2014, 26-33) 해인사에는 舊譯本에 해당하는 東晉의 佛駄跋陀羅가 번역한 晉本 60華嚴의 변상이 권1-7, 13-16 각 권마다 1장씩 12점이 남아있다. 크기는 23.0×57.5cm이며, 版畫의 가장자리에는 金剛杵와 端摩를 번갈아가며 배치해 놓은 테두리가 있다.



〈그림 1〉 晉本 華嚴經 卷1, 13세기, 합천 해인사 소장



〈그림 2〉 周本 華嚴經 卷34, 12세기, 호림박물관 소장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4호)

新譯本에 해당하는 80華嚴(국보 제206-14호)은 周의 實叉難陀가 번역한 것으로 현전하는 변상판목의 수는 50매로, 각 목판의 앞·뒷면에 새겨져 있다. 권1-80까지의 변상판목 80판과 마멸판 1점, 파손판 2점, 미완성본 1점을 합쳐서 전체 84점이 보관되어 있으며, 권1 한 장의 크기는 24.8×55.6cm 가량으로 卷首에 <世主妙嚴品>의 神將像이 그려져 있으며 제 26, 29, 33, 64판은 2중 판각되었다.(임기영 2009, 30-37) 현전하는 80華嚴의 印本 중 5점(권34, 권36, 권26, 권28, 권72)은 그 판각 및 인출시기가 12세기로 추정되는 자료들이다.

80점의 변상판화는 형식상 세 가지로 나뉘며, 첫 번째는 請文衆들이 모여앉아 經이 시작되는 설법장면, 두 번째는 經의 主佛인 毘盧遮那佛의 설법장면이 오른쪽에, 왼쪽에는 여러 보살들에 의해 說해지는 경전의 내용이 묘사된 것이다. 세 번째는 설법장면 없이 經典의 내용만을 묘사한 형식으로, 이같은 형식은 60華嚴 변상에서도 거의 동일하다.

현전하는 80華嚴의 印本 가운데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권34(보물 제1847호)는 해인사판 인출본의 模本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高麗大藏經을 간행할 때에 底本으로 사용되었던 1098년(肅宗 3) 판본의 국내 傳來本으로 본문 옆에는 角筆의 懸吐가 표시되어 있다.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권36(국보 제24호)은 호림박물관 소장본과 字體, 板式, 板刻의 상태, 板首題, 墨色, 紙質, 印刷상태 등이 매우 흡사한 것으로 미루어 호림박물관 소장본과 같이 약 11-12세기 제작된 것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

또한 해인사에는 《預修經》 3종의 판목이 소장되어 있다. 이 經典의 원래 명칭은 《閻羅王授記四衆逆修生七往生淨土經》이고 唐 成都 大慈寺의 藏川이 지은 것으로 불교의 地藏信仰과 도교의 冥府觀을 결합하여 ‘預修信仰儀禮’로 체계화시킨 이론서이다.



<그림 3> 豫修經, 1246(국보 제206-10호), 합천 해인사 소장

3종 중 그 첫 번째는 국보 제206-10호로 지정된 9판 完帙이다. 제7장만 단면판각으로 도상의 내용은 地藏十王圖(十大王像이라고도 함), 判官, 鬼王, 使者像 등이 나타나 있다. 제 16장을 새긴 권말 판목 제15-19행에 기록된 識記(伏爲先考婦親生死骨肉夫婦親緣普/及法界衆生不滯幽途隨願往生諸佛/國土鏤板印施云/丙午三月日優婆塞鄭晏誌)를 통해 丙午年 즉, 1246

년(高宗 33) 鄭晏의 발원에 의해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豫修經, 13세기(보물 제734-3호), 합천 해인사 소장

해인사에는 같은 판명의 《預修經》 2종이 더 남아 있다. 보물 제734-3호로 지정된 8판落帙과 이를 다시 번각한 보물 제734-4호가 그것이다. 이 두 자료는 글자체와 변상화의 배열, 도상의 문양 등이 완전히 동일하나, 후자는 2판이 缺失된 형태로써 현재는 6판 12장 분량만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 순천 송광사 소장

순천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불서 가운데에는 중국 唐代 인물인 寒山·習得·豐干 세 사람의 시를 모아놓은 《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이 소장되어 있다. ‘閻丘胤’이라는 사람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해당 자료에도 판화 1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려시대 분사대장도감에서 1254년(高宗 41)에 간행된 기록(甲寅歲分司大藏都監雕造)이 남아있다.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17.0×11.5cm로, 계선이 없으며 半葉은 12행 22자로 배자되었으며, 판심은 上下向黑魚尾의 형태이다. 이 책은 앞표지에는 ‘豐寒拾三詩集’이라고 쓰여져 있고, 뒷표지에는 ‘豐寒拾詩集’이라고 적혀져 있다.

한산은 생애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전설적인 인물로 절강성에 있는 천태산의 國清寺 부근 寒巖이라는 곳에 숨어살며 ‘한산’이라 자칭하였다. 습득은 국청사의 선승인 풍간의 도움으로 국청사의 부엌에서 일을 하며 殘飯이 있으면 모아두었다가 한암의 한산에게 주었다. 한산은 음식을 얻어먹으면서도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쾌활하게 소리치거나 혼자 웃고는 사라지곤 했다고 한다. 그는 시간이 나면 습득과 함께 시를 읊으며 한암 주변의 나무, 돌, 벽 등에 시를 써서 남겨두었는데, 훗날 여구윤이 이를 수집하여 編纂한 것으로 알려진 것이 『한산시집』 또는 『삼은시집』이다. 그러나 이 여구윤 또한 가공된 인물로 보는 견해가 많아 의문을 남기고 있다.



〈그림 5〉 《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 1254, 소장권말 간기부분, 순천 송광사 소장

먼저 책의 첫 장에 세 사람이 그려진 版畫와 함께 5言의 儒가 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표현된 모습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산습득도>(한산과 습득을 그린 선종화는 산발하고 누더기 차림인 두 인물이 파안대소하는 장면으로 그려짐)와는 다르게 한산을 비롯한 습득과 풍간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책 내용은 한산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 서두에 나오고 그가 남긴 시문을 5언, 7언, 6언 등으로 나누어 총 313수를 실었으며 이 가운데 5언이 287수로 가장 많다. 그 다음 <풍간선사록>이라고 하여 풍간의 인물담과 함께 그의 시문 3수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득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습득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과 아울러 그의 시문 59수를 정리하였다.(송광사성보박물관 2004, 80-84)

해당 자료는 禪宗 祖師를 대상으로 표현한 판화로써 현전하는 예가 드문 자료이며, 대장경을 간행한 곳에서 함께 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3. 일본 남선사 소장 《御製秘藏詮》 판화

고려시대의 판화본들 중 빼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바로 초조대장경 《秘藏詮》 판화본일 것이다. 이 《秘藏詮》은 北宋 太宗(976-997)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부처의 심오한 秘法藏의 뜻을 詩賦의 형식으로 구성한 일종의 불교시집으로 현재 53점의 판화가 일본 남선사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다른 고려시대 판화본들이 경전의 내용을 충실히 도해하였다면, 이 판화는 한 폭의 山水畫를 연상시키는 描畫형식을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하여 이 판화본들은 고려시대 회화사에 있어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언급될 만큼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6〉 御製秘藏詮 卷10-IV(圖50), 11세기, 일본 남선사 소장

이 『秘藏詮』 판화에 대해 필자는 박사학위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해당 판화본의 특징 및 현황에 대해 선행연구를 비롯한 본인의 연구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1-20(권17 결본)의 각 책에는 5장의 판화가 삽입되어 있으며 대부분 동일한 위치(장차 1, 5, 9, 13, 17, 판화 사이마다 본문 3장씩이 있음)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권1-10까지 수록된 50여개의 판화는 권11-20까지 重複해서 사용되었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학교 소장 북송본 『秘藏詮』 권13(1108)과 남선사 소장의 고려본 『秘藏詮』 권13의 판화는 도상과 그 삽입된 위치가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동일판본의 중복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재배열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부분이다. 권21에 해당하는 『御製佛賦·御製詮源歌』에는 3폭의 불교판화가 삽입되어 있으며(김자현 2011, 35-68) 이 그림들은 권1-20까지에 포함된 다른 도상들과 달리 釋迦의 일대기를 나타내는 佛傳圖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판화의 函次가 經文의 千字文 函次와 달리 숫자(六·七)로 확인된 것은 경문과 판화가 별도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판수제를 통해서 각 권의 권차와 장차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재배열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의해 수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해당 판화의 내용은 크게 인물과 산수의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인물의 경우는 入山求法의 行脚僧과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 수궁하기 위해 노력하는 文人們로 나뉜다. 판화에 등장하는 각승들 중 일부에서는 <현장취경도> 및 <호반행각승>과 같이 당시 중국에서 유행한 도상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山水는 그들이 생활하는 禪宗叢林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唐末·五代 이후 회화의 주제가 인물 중심

에서 산수로 변화하게 되는 宋代 회화의 특징을 판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사회상황이 문화 예술적 측면에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석혜영 2018, 195–220)



<그림 7> 秘藏詮 卷8-II(圖38), 天清寺 塔의 浮彫(990, 開封), 秘藏詮 卷4-IV(圖21)(왼쪽부터)

『秘藏詮』은 각양각색의 畵風유형을 지니고 있으며, 그 완성연대를 10~11세기로 본다면, 版畫의 板下本을 그린 작가 또한 그 당시 宋代 궁정화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고려본 『秘藏詮』이 북송본의 覆刻이기는 하지만, 고려만의 판목을 마련하여 간행하였다는 점, 그리고 현전 판화본의 수려한 판각 솜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려 刻工들이 중국 못지않은 기술과 감각을 지녔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간행시기별 불경 판화

1. 11세기

1)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해당 자료는 통일신라시대 간행된 『無垢淨光大陀羅尼經』에 이어 현존 두 번째로 오래된 목판본이며, 고려시대 제작된 가장 最古의 木版畫本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립도쿄박물관 소장본(국립문화재연구소, 2005)과 2007년 안동 보광사 관음보살상에서 발견된 불복장본(보물 제1571호)이 전해진다. 1007년(穆宗 10) 摩持寺에서 간행한 것으로 卷首에 ‘高麗國摩持寺主眞念/廣濟大師釋弘哲敬造/寶篋印經板印施普安/佛塔中供養 時/統和二十五年丁未歲記’라는 5행 43자의 刊記가 있다.

화면의 왼편에는 釋迦가 제자들과 함께 바라문의 집에 막 도착한 장면으로, 집을 뒤로하여 산을 묘사해 놓음으로써 일종의 遠近을 표시하였다. 그럼의 오른쪽에는 寶篋印陀羅尼塔의 기

단과 탑신·상륜부까지를 상세히 표현하였으며 탑 주변에는 하늘에서 보배꽃이 내려 불탑을 공양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림 8〉 寶篋印陀羅尼經, 1007, 일본 오구라 컬렉션 소장



〈그림 9〉 寶篋印陀羅尼經, 1007, 안동 보광사 소장(보물 제571호)

위 자료의 模本으로 추정되는 자료로는 중국 五代시기의 것 3종이 전한다. 그 중 하나로 1924년 西湖 雷峰塔(吳越國王 錢俶이 가장 총애한 王妃 黃氏의 복을 기원하며 建造한 것으로, 南屏山 雷峰 顯嚴院에 지어져 雷峰塔이란 이름을 얻었고 黃妃塔으로 불리기도 하였다.)이 무너진 곳에서 발견된 《寶篋印陀羅尼經》<그림 10>이 있다. 크기는 높이 7cm, 길이 2m, 經文은 27행이고, 매행 10자로, 발견 당시 黃綾(노란 비단)에 말려 있었다. 975년(開寶 8) 간행된 이 자료의 권수에는 ‘天下兵馬大元帥吳越國王錢俶/造此經八萬四千卷捨入西關/磚塔永充供養乙亥八月日紀’라는 3행의 刊記가 있으며, 黃起鳳, 吳士鑒, 陳會壽, 康有爲 등이 함께 발원한 것으로 확인된다.(周心慧, 1998)

<그림 11>은 1917년 湖州 天寧寺 改建 과정 중 石鐘의 象鼻 안에서 발견된 여러 권의 莊嚴具 중의 하나로 後周 956년(顯德 3) 丙辰年에 간행된 것이다. 吳越國王이 施主하였으며 卷首의 刊記는 4행으로 ‘天下都元帥吳越國王/錢弘俶印寶篋印經/八萬四千卷, 在寶塔內供/養顯德三年丙辰歲記’라 쓰고 있다. 經文은 모두 338행이며, 매행 8~9자, 上下單邊이며 卷軸裝이다. 현재는 安徽省博物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卷首 版畫의 선은 뚜렷하면서도 정교한 특징이 있고 筆劃이 분명하면서도 균형이 잡혀있다.

<그림 12>은 1971년 折江 紹興顯城關鎮의 한 공사 현장에서 출토된 金塔 1개좌의 내부

에서 발견된 것으로 竹簡 내에 들어있던 것이다. 北宋 965년(乾德 3)인 乙丑年에 간행된 것으로 卷軸裝이며 권수에는 ‘吳越國王錢俶造此寶/篋印經八萬四千卷永/充供養乙丑歲紀’라는 3 행의 刊記가 있다. 經文은 매행 11~12자로 經文양식이 균일하며, 變相版畫는 丙辰本과 차이를 보인다. 우선 여래의 권속을 비롯하여 화면에 여백과 자연의 묘사대신 인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각선이 섬세하고 세련되지 못하며, 둔탁한 느낌을 준다.



<그림 10> 寶篋印陀羅尼經, 975, 上海圖書公司 소장



<그림 11> 寶篋印陀羅尼經, 956, 安徽省博物館 소장



<그림 12> 寶篋印陀羅尼經, 965, 浙江省博物館 소장

이들 3종의 五代시기 자료와 고려시대 충지사에서 간행된 판본을 비교해 볼 때, 그 저본으로는 956년 제작된 것이 가장 유사함을 알 수 있다.

2. 12세기

1) 妙法蓮華經

《妙法蓮華經》(이하 《法華經》)은 전체 7권 2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불교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간행된 불서이기도 하며, 《華嚴經》과 함께 한국불교사상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고려시대 가장 빠른 시기 간행된 《法華經》 가운데 판화가 현전하는 자료로는 기림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인 권6 영본 1책<그림 13>을 들 수 있다. 卷首 변상화의 내용은 제18 수희공덕품, 제19 법사공덕품, 제20 상불경보살품, 제21 여래신력품, 제22 촉루품, 제23 약왕보살본사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卷末에 ‘施主 金氏 夫人 棟梁比丘永旦’이란 墨書가 확인된다.



<그림 13> 《法華經》 권6, 12세기, 경주 기림사 소장



<그림 14> 《法華經》 卷6, 1160,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

해당 판화의 가장자리 테두리에는 금강저와 갈마를 교차시켜 배치하였고, 화면 우측에는 석가설법도, 좌측에는 경전의 세부내용을 도해한 양식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판본 《法華經》이 남아있는 작례는 흔치 않은 경우이다. 판화에서 보여 지는 각선의 표현 기법 등은 앞서 살펴본 12세기 초조대장경이 판각되었을 시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판본은 이후 많은 繪經들의 底本으로 활용되었음을 현전하는 자료들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국립중앙박물관 2007)

<그림 14>는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1160년 간행된 것이다. 원래 折帖이던 것을 改裝하여 卷軸裝으로 만들었으며, 각수명은 ‘李度刀’로 확인된다. 위의 두 자료는 변상화에서 나타난 도상이 큰 차이 없이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法華經》 변상화가 宋代 판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2)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의 복장유물로 출토된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이하 《藥師經》)은 玄獎(602-664)이 번역한 것으로 그 제작시기가 12세기로 추정된다.(해인사 성보박물관 2008) 권수에는 변상화가 있으나 앞부분 일부가 결락된 상태이다.

15장을 연결하여 卷軸裝을 만들었다. 上下單邊에 상·하간 높이는 22.2cm, 계선이 없고 제 1장은 23행 15자, 2~15장은 24행 15자이다. 板首題는 ‘藥師經 一’과 같이 略書名과 장차를 표시하였고 卷末에 진언이 있으며 본문 중에는 ‘光’ 혹은 ‘明’자 등이 古字로 쓰인 것으로 확인된다.

《藥師經》에 근거하여 약사여래를 신봉하는 신앙은 우리나라의 고대부터 중요시 여겨지던 신앙형태로, 삼국시대를 통일한 신라에서는 이 책에 대한 연구가 懿興과 太賢 등의 高僧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고, 약사여래상의 조성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림 15> 藥師經, 12세기, 합천 해인사 소장

고려시대에도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약사도량이 자주 개설되었는데, 이 또한 ‘藥師’의 명호를 외우면 국가의 재난이 소멸된다는 약사여래의 본원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겠다.

3. 13세기

1) 妙法蓮華經

이 책은 宋板을 底本으로 간행한 《法華經》 7권 2책 完本으로 권말에 수록된 成敏의 발문 (夫蓮經之旨甚深微妙御製經中/尊最上若能竊爲一人說經一句/其功匪涯河況方便廣施於衆是用弟/子早勤信奉與前戶長李希呂同轉/願輪躬板而手彫以廣流通所冀/皇帝萬年國王宮主各保千秋儲闈衍/慶宗室凝休陰陽調朝野平/佛日恒明法輪永轉法界含靈共證/菩提至元二十三年丙戌五月日道/人成敏誌同願/判官所仕郎良醞令曹胤/知洪州事副使管勾學事殿中內給事尹胡)을 통해, 1286

년(忠烈王 12) 그의 제자 早勤이 前戶長 李希呂와 함께 발원하여 스스로 판목을 새겨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복장유물로 발견된 후 표지 및 장정을 線裝으로 改裝한 것으로 보인다. 제 1책의 권수에는 변상판화 2점이 수록되어 있는데, 판화의 형식이 宋板계통에서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화면의 橫的 구도로 보면 대체로 上·中·下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상단에는 석가 위의 天蓋를 중심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十方諸佛이 天蓋 좌우에 대칭적으로 배치되고, 그 옆에는 사자를 탄 문수보살과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이 역시 飛雲에 싸여 있다. 오른쪽 문수보살 옆에는 두 보살이 구름을 탄 妙音菩薩과 智通菩薩이 있다. 그와 대칭되는 보현보살의 옆에는 역시 구름에 싸인 寶塔이 배치되어 있다. 중단에는 天蓋 아래로 석가여래가 10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天王, 繫那羅王, 阿修羅王이 위치해있고 왼쪽에도 역시 天王과 乾闥婆王, 迦樓羅王이 2구씩 배치되어 있다. 하단은 석가여래의 대좌를 받치고 있는 연꽃을 중심으로 사리불과 阿闍世王이 무릎을 끓고 앉아 합장하고 있다. 그 오른쪽의 사리불 옆에는 비구니, 보살중, 일궁천자, 천자, 용왕이 있고 왼쪽에는 제석, 성천자, 월궁천자, 범왕, 용왕의 순으로 배치된 구도이다.

권수의 변상화에 이어 終南山 沙門 道宣이 지은 序文이 실려 있으며, 卷首題는 제1행에 ‘妙法蓮華經’이라 경명을 쓰고, 다음 행에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이란 譯者표시가 있다. 다음 행에 제 1품인 <序品>의 品題를 시작으로 經文이 시작된다. 판식을 살펴보면 上下單邊으로 상·하간의 높이는 15.5cm이다. 장은 모두 60행으로 1행 16자로 配字되어 있다.(문화재청의 해제에서는 1행 24자 이상이 배자된 판본의 경우를 ‘소자본’이라 칭하고, 해당 판본의 경우는 ‘소형본’이라는 용어가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중앙에 별도의 판심부가 남아있지 않으며, 행간 사이에 장차를 표시하고 있다. 宋板의 복각본으로 字體는 단정하고 자획에 이지러짐이 없다.



<그림 16> 法華經, 1286, 호림박물관 소장(보물 제693호)

<그림 17>은 앞서 살펴본 <그림 16>의 底本이 된 南宋시기 板本으로 上下單邊에 細字로 매행 29자가 배자되어 있다. 卷首版畫는 靈山說法圖로써 1장을 5면으로 접었다. 여래는

結跏趺坐로 蓮花座위에 앉아 있으며 기타 청문중과 권속들은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畫面의 좌측 아래에 ‘浚璋刀’라는 각수명이 확인된다. 卷末에는 ‘臨安府衆安橋南賈官人經書鋪印’이라는 牌記가 있다. 千字文 函次가 ‘述一’로 확인되어 대장경으로 간행된 것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 중국 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17> 法華經, 1127–1179,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

2) 慈悲道場懺法

이 책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침회하는 불교의식서 가운데 하나로, 이를 수행하면 죄가 없어져 복이 생기고, 나아가서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설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일본 『南禪寺一切經』에 포함된 것으로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邊欄은 上下單邊의 크기는 32.8×13cm이며 表紙에는 印刷된 제첨이 덧붙여져 있다. 1장 4면씩 折帖되었으며, 1면 5행 15자씩 배자하였다. 각 권의 권수에는 변상화인 梁皇寶懺圖 1장과 여래의 圖像과 名號를 蓮花臺 위에 배치시킨 판화 1장이 수록되어 있다. 변상화의 여백에 ‘兪聲刊’이라는 刻手名이 확인되고 각 장의 연결부분에는 한자로 ‘第七十二’와 같이 권차, 장차를 표시하였다. 각 권에 수록된 2장씩의 판화는 모두 같은 板에서 印出한 것을 반복하여 사용한 것이며 변상화의 크기는 23.8×52.4cm로 동일하다.(남선사 소장본 권1–10 중 권2·4는 寫經, 권8은 異版本으로 書體가 다른 것으로 확인됨) 권10 마지막에 李德孫의 發願文(東京副留守前朝散大夫版圖摠郎李德孫/時至元十九年壬午七月日誌)이 있다.

발문에서 확인된 간행자 李德孫은 생존 당시 아래로는 백성들을 摾取하고 위로는 뇌물과 총애로서 관직 생활을 보낸 璧臣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에 관한 傳記 내용은 墓誌銘(許興植, 1984)과 安鼎福의 『雜同散異』에 실려 있어 본서의 간행과 관련된 사항을 비교해 볼 수 있다. 序에는 1282년(忠烈王 8)의 직위가 東京府留守 版圖摠郎으로 되어 있으나, 墓地에는 이미 그보다 앞선 己卯年(1279) 初에 東京留守로 부임하였다고 하니 직위와 시간적인 간격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그림 18> 慈悲道場懲法, 卷1 卷首 및 變相, 1282, 일본 남선사 소장



<그림 19> 慈悲道場懲法, 卷10 卷末, 1282, 일본 남선사 소장

이를 확인하기 위해 《慶州先生案》을 살펴보면 墓誌의 기록과 서로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잘못 삽입되었거나 ‘東京府留守’를 誤刻한 것으로 추정되나, 명확한 연유는 현재 알 수 없다. 다만 해당 자료는 간행년대가 1282년(忠烈王 8)으로 현존하는 有刊記本 가운데서 가장 빠른 시기인 것으로 확인된다.

敦煌 資料 중 西夏文獻 속에서 發見된 <그림 20> 자료의 경명은 《慈悲道場懲罪法》으로 ‘罪’자가 追加되었으나 변상의 圖像樣式이나 여러 여래들의 名號가 收錄된 부분 등이 南禪寺 소장의 고려본 《慈悲道場懲法》과 매우 유사하다.(寧夏大學西夏研究中心, 國家圖書館, 甘肅五涼古籍整理研究中心 [共]編 ; 史金波, 陳育寧 主編, 2005) 이 책은 西夏文으로 된 折帖의 木板本으로 형태사항 또한 고려본과 동일하다. 이 외에 확인되는 차이점은 권수제와 권차에 이어 小字로 저자사항을 서하문자 두 줄로 밝혀두었다는 점이다.(한자로는 ‘天生全能祿蕃佑聖式法正國皇太后梁氏 御譯’, ‘救德主世增福正民大明皇帝 崩名 御譯’)

이들 두 자료를 서로 비교하면 구도가 거의 같고 人物의 배치나 그려진 양식, 태두리의 장식도 동일하다. 다만 梁 武帝가 난간이 있는 건물의 단 위에 坐定한 위치로부터 내려오는 계

단이 서로 다르게 表現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중국에서 간행된 판본이 高麗와 西夏의 兩端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그림 20〉 慈悲道場懲罪法 卷1(西夏文),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

권1의 <序> 7면에는 제목아래 ‘何森秀 判’의 각수명과 西夏文으로 ‘此懲罪法 出處地方 江南 經院 建康府城內 奉勅已集’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底本이 강남의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각 장의 연결부분에는 漢字로 ‘一卷 四’와 같이 권차와 장차를 표시하고 있다.

4. 14세기

1) 金剛般若波羅蜜經

이 책은 大乘佛教의 근본을 이루는 경전으로 약칭 《金剛經》이라고 하며 《大般若經》 600卷 중 제9회 《能斷金剛分》의 別譯으로 부처와 제자 須菩提의 문답형식으로 되어 있다. 禪宗에서는 六祖 慧能이 이 經文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여 가장 중요시되는 경전이기도 하다. 이 경의 漢譯은 모두 6종이 있으나 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이 가장 널리 유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간행한 각종 論疏가 100여 종에 이른다. 고려시대 간행된 《金剛經》중 3종 4점의 자료에서 變相版畫가 확인된다.

(1) 1311年, 개인소장

이 자료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간행된 小形 袖珍本으로 보물 제775호와 제1095호로 지정된 2점이 현존한다. 먼저 보물 제775호의 자료를 살펴보면 표지에는 특별한 표제가 없으며 표지는 근래에 새로 改裝된 것으로 보인다. 板式의 특징을 살펴보면, 邊欄은 上下單邊이며, 상·하간의 높이는 5.0cm이며, 전체 크기는 6.5cm이다. 판면에 界線이 없으며, 또한 板心과 魚尾도 보이지 않는다. 1면은 7행씩 접혀있으며, 1행 10자로 배자되어 있다. 字體는 중국본 《寶篋印陀羅尼經》의 서체와 흡사하며 紙質은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楷紙이다.

권말의 識記에 의하면 覺圓이 比丘 達玄, 永興 등과 信徒 李琦, 田大同 등이 함께 발원하여



<그림 21> 金剛經, 1311, 화성 봉림사 소장(보물 제1095호)

옛날 燕나라 지역에서 우연히 本國의 僧侶 洪准이 쓴 小字本 《金剛經》을 보게 되어 1311년(忠宣王 3)에 板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어 있는 印出記를 통해 1339년(忠肅王 復位 8) 晋城君 姜金剛이 施主하여 印出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수진본은 한 동안 受持讀誦하다가 腹藏된 듯이 약간 훼손된 부분이 확인되기는 하나 印出記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판각된 지 28년 후에 인출된 것으로 글자에 마멸이 별로 없고 인쇄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그림 21>은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의 하나로, 앞서 살펴본 보물 제775호와 동일 판본이며 현재 보물 제1095호로 지정되어 있다.

(2) 1357年, 개인소장

보물 제877호(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해제 참조)로 정된 이 자료는 鳩摩羅什이 漢譯한 것에 六祖 慧能의 註解가 붙은 것으로 책머리에 變相畫가 있다. 이어 普供養眞言과 發願文, 云何梵과 經文이 있으며 권말에는 補闕眞言, 大慈菩薩回向偈 등이 수록된 희귀한 판식의 《金剛經》 판본이다.

현재 1장에 32.0×34.5cm 크기의 전체 중이 71장이 권자본 형식으로 이어져 있으나, 32.0×17.5cm 크기로 접힌 부분이 뚜렷하게 확인된 것을 볼 때, 원래 제본은 線裝이었으나 이를 두루마리로 다시 제책한 것으로 추정된다. 판식은 上下單邊에 계선이 없으며 1행의 자수는 부정확하다. 본문 가운데 ‘法身非相分第二十六’의 시작부분 5행 가량은 일부 결실된 상태이다.

권수 설법도 <그림 22>의 크기는 32.0×27.2cm이며, 화면 중앙에 ‘千百億化身百億化身本師 釋迦牟尼佛’이 묘사되고 그 아래에 ‘護法金剛’과 ‘長老須菩提’가 묘사되고 좌측에 ‘天下湘山福州寂照普惠祖師無量壽佛’과 그 아래 ‘靈鳥使者’가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이름과 함께 새겨져 있다.

권말 刊記(此經我海東人雖讀誦/者多解意理者寡海東/全州優婆塞金貯偶得/此本欲廣示無窮

以德/雲寺沙門志禪祖桓幹茲事/請刻手省珠法宏等彫/板傳示無窮福利邦家/利益生亡其功德豈小/補哉/至正十七年丁酉六月日刊/全州開板)에 의해 1357년(恭愍王 6) 전주에 살던 金貯가 德雲寺의 志禪 祖桓에게 부탁하여 省珠 法宏 등이 刻手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字體는 松雪體이며, 《金剛經》 經文과 眞言, 發願文 등을 大字를 이용하였으며 《般若心經》 등을 中字로, 주석 및 義解부분은 小字로 새겼다. 裝幀은 여러 차례 改裝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현재는 卷軸과 緣竹이 없다.



<그림 22> 金剛經, 1357, 개인소장(보물 제87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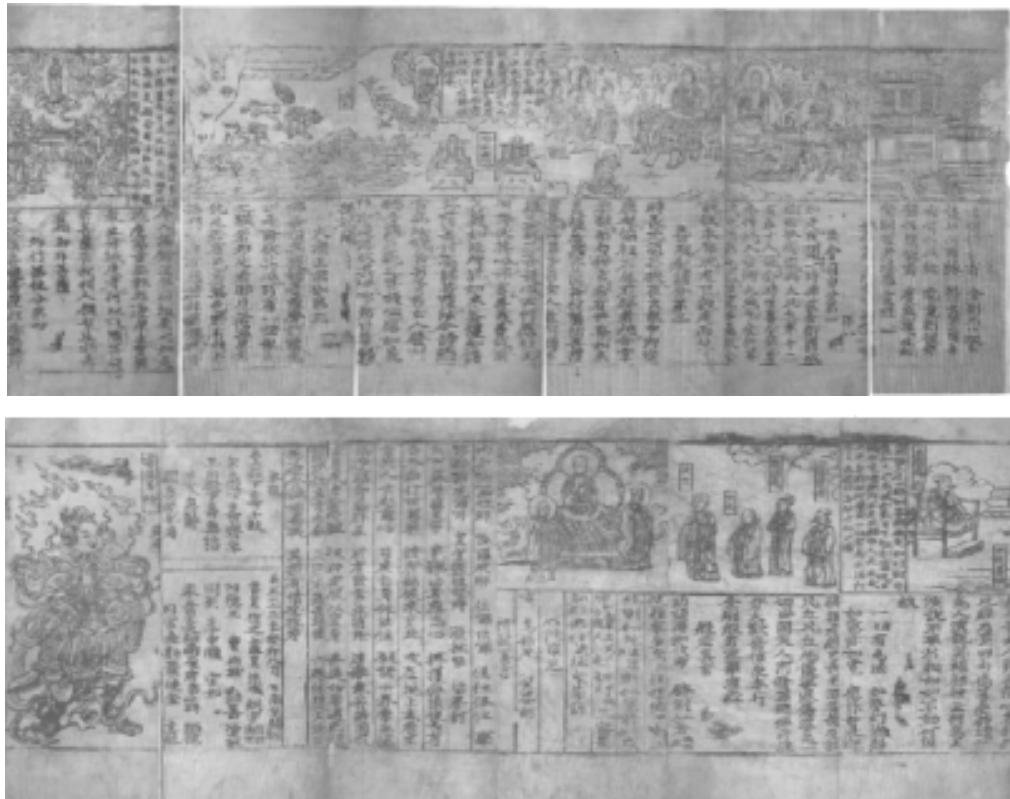
변상화 또한 특이하여 주목된다. 보살과 여래가 각각 대좌에 앉아 있으며 그 주변을 神將이 호위하고 있다. 변상화와 본문을 구분하는 별도의 테두리는 없으며 佛菩薩의 생김새가 이국적인 것이 특징이다. 고려시대 불교경전 가운데 독특한 판화를 지닌 것으로 특히 신앙의례용으로 편집된 《金剛經》으로 추정된다.

(3) 1363年,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그림 23>은 1363년 전라남도 南原에서 府使 薛師德과 判官 金英起의 주관 아래 信之가 글씨를 쓰고 法戒가 그렸으며, 信明과 法空이 새긴 것이다.

책머리의 眞言 및 啓請菩薩文 등 문장이 약간 결락된 상태이나, 전체적으로 상단에 변상화를, 하단에 본문을 새겨 찍어 낸 上圖下文 형식을 취한다. 發願文(奉祝/主上殿下壽千秋/公王殿下壽齊年/王后殿下壽無疆/于戈息靜/國泰民安者/至正二十三年癸卯八月日南原開板/書員信之畫員法戒刻字[信印法空]/功德主曹松柱勸善覺印/願李中順定如/奉常大夫知南原府事薛師德/判官兼勸農使金英起)에 이어 《金剛經》의 본문이 ‘第一 法會因由分’부터 ‘第三十二 應化非眞分’까지 완전하게 수록되고 있다.

변상화는 說法圖를 시작으로 각 分의 주요 주제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



〈그림 23〉 金剛經, 1363,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보물 제696호)

다. 卷末에는 護法神將이 새겨져 경전을 장엄하게 마무리하고 있다. 판각이 정교하지 못하고 인쇄가 깨끗한 상태는 아니나, 고려시대 지방 관판으로 간행된 보기 드문 자료이다.

<그림 24>는 2007년 가을 中國 北京의 한 경매에 출품되었던 자료로, 北宋 때 간행된 折帖裝이며 經文과 版畫 모두 上下單邊이다. 권수판화는 說法圖이나, 나머지 판화에는 八金剛立像과 四菩薩像이 매 1장의 上부에 묘사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4〉 金剛經(北宋), 현 소장처 미상

도상의 우측에는 金剛名과 그 利益됨을 기록하였고, 도상의 下部에는 經文을 병렬시킨 형식이다. ‘《金剛經》을 書寫하고 讀誦하면 利益이 된다’는 내용으로 각각의 金剛像은 힘이 넘치는 웅건한 자세를 취하고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앞서 살펴본 고려본의 특이한 형식은 이 자료와 많은 유사성을 지닌 것으로 보여 진다. 단, 고려본의 경우는 하단에 도상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2) 大方廣佛華嚴經疏

이 책은 저자인 淨源이 大覺國師 義天에게 1087년(禪宗 4) 宋의 상인 徐燄을 통해 보낸 목판을 번각한 것이다. 본래 周本 《華嚴經》을 底本으로 註解한 註疏本 120卷 중 하나로 권41에 해당한다. 卷首의 서명은 ‘大方廣佛華嚴經疏’로, 다음 행의 저자표시는 ‘清涼沙門 澄觀述 晉水沙門 淨源錄疏注經’이라 기재하고 있다. 卷首題 아래로 ‘入第二十四經下半’이란 표시가 小字로 새겨져 있으며 이는 原文과의 관련성을 註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 華嚴經疏 卷41, 1372, 천태종 중앙박물관 소장(보물 제964호)

裝幀의 형태는 折帖으로, 크기는 31.5×10.7cm이며 판식은 上下單邊에 계선이 있다. 1장은 5면씩 접혀 있으며, 접은 한 면은 4행으로 1행 15자씩 배자되어 있다. 접련부분에는 板首題가 기입되어 있으며 표지는 짙은 감색으로 염색한 종이를 사용하였으며, 앞표지의 표제는 유실된 상태이다.

표지를 넘기면 권수에 변상화가 있으며 그 크기는 23.7×64.2cm로, 이와 동일한 다른 판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高麗寫經의 변상화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版畫라 할 수 있다. 변상화의 앞쪽 牌記에는 〈刻注華嚴經變相緣起〉(刻注華嚴經都變相緣起/華嚴海會稱周去界依正主伴重重無盡珠網鏡燈未足/爲喻豈可以凡心凡筆形容者哉然凡夫識昧非相無以生信/由是古今寫佛經者 皆畫變相冠於권수蓋爲令物生/信因此而入道也其益豈小乎此注經

板乃大覺國師求/法入宋泛海賈來也所恨但無此變相某等且依古範/募工彫板留于五冠山靈通寺印施無窮者/洪武五年壬子九月日/中正大夫親御軍大護軍兼內府令李美冲/正順大夫判典儀寺事朴成亮/忠勤佐命功臣大匡判內寺府事金師幸)가 수록되어 있어, 이 자료가 大覺國師 義天이 머물렀던 五冠山의 靈通寺에서 內府令 李美冲 등의 주관으로 1372年(恭愍王 21)에 판각된 사실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宋으로부터 전수된 경판이 이 무렵 靈通寺에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紙質은 楷紙만을 사용하였으며, 捣砧을 잘 한 上品의 종이를 사용하였다. 字體는 宋板에서 유행한 전형적인 歐陽詢體로 보이며, 본문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독서의 흔적이나 낙서가 별로 없는 것이 특징이다.

3) 妙法蓮華經

해당 자료는 권1 영본 1책으로 표지에는 金泥로 ‘妙法蓮華經卷第一’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上下單邊에 계선이 없으며, 1장은 42행 18자로 각 면은 6행 18자씩 배열하여 折帖하였다. 1면의 크기는 28.8×8.8cm이다.



<그림 26> 法華經, 14세기(小字本), 호림박물관 소장

권수판화는 석가모니가 여러 권속에 둘러싸여 설법하는 靈山說法圖이다. 화면 중앙에는 대좌에 앉은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권속들은 좌우 대청된 모습을 하고 있다.

13세기에 간행된 남송본을 저본으로 한 법화경과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화면구성의 변상화가 고려시대 상당히 유행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이러한 도상은 조선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도상이라 할 수 있다.

4) 佛說大報父母恩重經

이 책은 鳩摩羅什이 漢譯한 《大報父母恩重經》으로 부모의 은혜가 막중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은혜를 갚는 방법을 제시한 佛教經典이다. 경에는 내용을 알기 쉽게 도상화한 21장면의 변상판화가 삽입되어져 있으며, 주제에 따라 如來頂禮圖(如來禮拜枯骨圖), 十恩變相圖, 八譬喻圖, 三寶供養圖(何報得父母深恩圖), 阿鼻無間地獄圖(阿鼻墮苦上界快樂圖)로 명명된다.

(1) 경주 기림사 소장본

이 책은 기림사 복장 유물 가운데 보물 제959-2-16호로 지정된 것이며 ‘戊午年에 自延의 化主로 비구 法弘과 金臣桂가 시주하여 개판하였다’라는 기록만이 권말에서 확인되어 원래 확실한 연도는 알 수 없다.



<그림 27> 恩重經, 1378, 경주 기림사 소장(보물 제959-2-16호), 십은변상도 및 권말간기, 권수제

그러나 보물 제701호로 지정된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經》(이하 《長壽經》)의 化主 및 施主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두 경전 모두 동일한 시기에 판각된 자료로 알려져 왔으며 그 판각년도는 1378년(禡王 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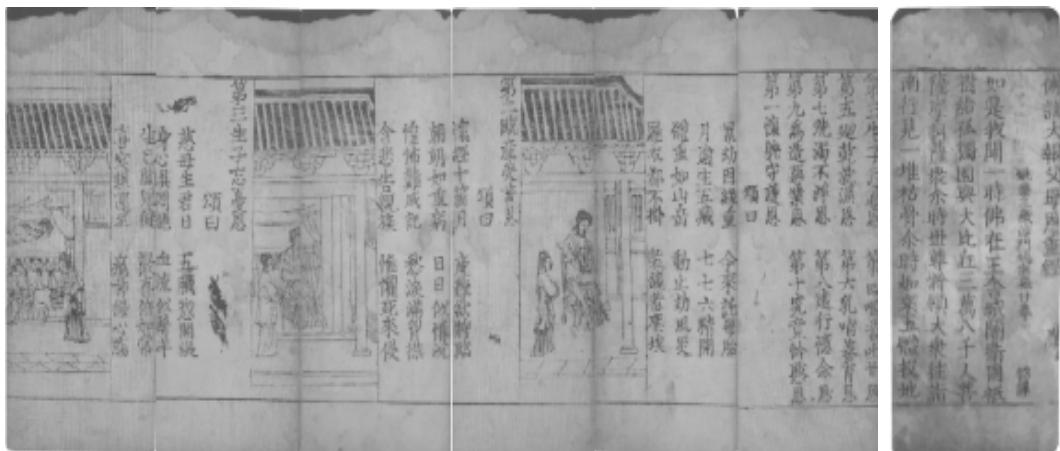
형태사항을 살펴보면 목판으로 찍은 折帖本으로 판식의 변란은 上下單邊으로 상·하간 높이는 21.0~22.0cm, 1장 30행 20자로 1장의 크기는 대략 32.5×55.5cm이며, 6행씩 접힌 상태이다. 書名 및 張次가 ‘恩六’ 등과 같이 확인되며 版畫는 上圖下文의 형식으로 각 1恩마다 儒頌이 덧붙여져 있다.

(2) 삼성 리움미술관 소장

보물 제705호로 지정된 본 자료는 卷首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라는 서명 다음 행에 ‘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奉 詔譯’ 이란 譯者 표시가 확인된다. 흔히 《恩重經》은 佛教의 《孝經》으로 중국에서 찬술된 僞經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經典에서는 真經처럼 ‘鳩摩羅什’이라

는譯者 표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卷末에는 眞言이 첨가되었으며, 이 진언이 끝나는 다음 행부터는 《佛說父母恩重胎骨經》이 合本되어 있다.

권말 간행기록을 통해 戊午年에 自延이 化主를 맡고 比丘 法弘과 金臣桂의 施主로 開板된 것으로 기림사 소장본과 같이 확실한 연도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책 또한 보물 제701호로 지정된 《長壽經》과 化主 및 施主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두 책의 간행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그 판각년도인 戊午年을 1378년(禡王 4)으로 보는 것인 현재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권말의 ‘朝奉大夫司宰少監 李成壽’와 ‘恭人 崔氏’라는 施主 기록을 참고해 볼 때 판각은 고려시대에 이루어졌으나 인출 시기는 조선초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8〉 恩重經, 1378, 삼성 리움미술관 소장(보물 제705호), 십은변상도 및 권수제와 역자 표시

이 책의 판식을 살펴보면, 邊欄은 上下單邊으로 상·하간 높이는 21.5cm이며, 1장의 총 길이는 60.0cm가량으로 6면으로 折帖된 상태로, 1면 6행, 매행 15자씩 배자되어 있다. 1면을 기준으로 너비는 10.7cm로 板心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나, 접혀지는 부분에 ‘父母’라는 略題와 그 밑으로 장차가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기림사 소장 자료에서 ‘恩’으로 표시 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삽입된 十恩變相 版畫가 上圖下文이 아니라 左圖右文이라는 점도 큰 차이점으로, 동일년도에 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적 차이가 확인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본 책은 어린 童子를 보호하여 죄를 멀하게 하고 오래 장수하는 법을 설한 밀교 계통의 경전으로, 흔히 《長壽經》으로 불린다. 漢譯者는 蘭賓國沙門 佛陀波利라고 밝혀져 있으며 佛陀波利의 중국명은 覺護이다.

보물 제701호로 호암미술관에 소장된 《長壽經》은 折帖의 형태로 裝幀되어 있다. 표지는 근래 새로 改裝한 것으로, 복장유물로 추측된다. 卷首에는 대략 1.5장 분량이 떨어져 나갔으나 다행스럽게도 바로 이어 수록되어 있는 변상화는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김자현 2016, 57-81).

판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邊欄은 上下單邊으로 상·하간 높이는 11.2cm이며, 1장의 길이는 32.9cm이다. 1장은 모두 30행으로 1행 15자씩 배자되어 있으며, 1면은 6행 5절로 절첩되어 있다. 그리고 각 장의 중앙에는 ‘長’이란 略題와 그 아래로 장차가 표시되어 있으며,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다. 卷末題에 이어 發願文 및 간행기록(主上殿下壽万歲/諸官宗室各保千秋國泰民安雨/順風調未稼登稔天下太平法界有/情俱登覺岸者/戊午五月日重刻勸善比丘自延/同願比丘覺寬/同願比丘解禪/施主比丘法弘/金臣柱)에 따르면, 이 책은 주상전하의 長壽와 國泰民安을 기원할 목적으로 法弘과 金臣柱의 施主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9〉 長壽經, 1378, 제2장 판화



〈그림 30〉 長壽經, 1378, 제3장 판화

간행연대는 ‘戊午’라는 간지로만 표시되어 있어 명확하지 않았으나, 앞서 살펴본 고려본 《恩重經》 가운데 ‘戊午’로 표기된 판본이 2점 현존하며 이들 《恩重經》의 施主者名이 ‘法弘’과 ‘金臣柱’로 해당 자료의 간행참여자와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어, 이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간행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책의 간행연도 또한 1378년으로 알려져 있다. 뒤표지의 안쪽으로 ‘施主尹原通/幹善道人信岑’이란 施主 관련 墨書 기록이 확인된다.

한편 천안 광덕사 소장본 孝寧大君 발원의 사경(김자현, 2016. 57-81)에는 변상화 3점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으며 권수제의 제1 판화의 경우, 고려본은 아니나 조선시대 간행된 기림사 소장 《長壽經》(1432)의 권수변상도와 도상이 일치하고 있으며, 뒤 이은 제2, 제3의 변상도는 위와 같이 호암미술관 소장본 판화와 같아서, 원래 寫經의 底本이 되었을

《長壽經》板本의 온전한 형태를 추정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준다.

6)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이 책은 梁 武帝가 《慈悲道場懺法》을 撰修 한 뒤에 大梁의 天監年間(502~519)에 高僧들이 번잡한 부분을 없애고 요지를 摄錄한 뒤, 여러 경에서 妙語를 선택 후 편집한 것이다. 그 후 元代에 이르러 내용을 對校하고 審訂하면서 다시 정리하였으므로 ‘詳校正本’이란 용어가 포함되게 되었다. 앞서 13세기에 간행된 《慈悲道場懺法》에서는 著者에 대한 기록이 다양하게 즉, 梁 寶誌寶唱 仿淨住子製, 仿淨子製, 梁 誌公寶唱等集, 梁 寶唱等撰 등으로 확인되는 반면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에서는 ‘梁朝諸大法師 集撰’으로 확인된다(남권희 2008, 46~47). 해당 경전의 가장 빠른 시기 간본으로는 1316년(忠肅王 3) 邊山에서 보현사 비구석연의 주선으로 개판된 것(보물 제1543호, 개인소장)을 비롯하여 10여종이 있으며, 이 중 판화가 포함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1352,
고려대학교 소장



〈그림 32〉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1352,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그림 33〉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1352,
삼성 리움미술관 소장(보물 제 937호)



〈그림 34〉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1352,
호림미술관 소장(보물 제 1170호)

(1) 고려대학교 소장

이 책은 원래 荷堂 李聖儀의 소장본으로 영본 5권 1책(권1~5)이며 동국대학교 소장본(권4~6, 영본 1책, 서지사항 : 상하단면, 반과 24.8×20cm, 15행 13자, 책크기 ; 36×25cm)과

유사한 서지적 형태사항을 지닌다. 《佛書展觀目錄》에 ‘이 책이 卷軸裝의 형태이며, 서체가 松雪體의 大字이다. 刊記가 없어 확실한 간행년도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荷堂이 卷末에 ‘本書 慈悲道場懺法 卷冊은 高麗 恭愍王二十年 大明洪武四年(1370) 刊本이다’라는 기록을 남겨 1370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물 제875호로 지정된 와이엔텍 소장 자료인 권10에서 확인되는 권말간기(至正十二年壬辰十月日/鍊板知識靈哲禪一/刊知識了心達云/省朱法空智/法玄玉如宏乙/書貟知識衍虛)와 형태사항 등을 비교해 볼 때 1352년 간행본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진다. 이것은 동일판에서 인출된 자료들이 고려대나 동국대 등에 나뉘어 소장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남권희 2008, 46-47)

(2)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그림 32>은 계명대학교 소장본으로 권4-7까지의 영본 1책이다. 卷首 4면에 33.0×17.6cm크기의 변상화가 있으며, 판식은 上下單邊에 半郭은 25.3×13.4cm으로 계선이 없으며 5행 13자로 배열되고 無魚尾이다. 판각의 상태를 통해 획이 굵고 둔함을 느낄 수 있으며, 권4의 끝에 ‘刻手 法顯’이라는 기록과 권5와 권6의 卷末에는 각각 ‘法空’과 ‘玉女’의 刻手名이 확인된다. 특히, 이 판본은 《直指》를 찍은 흥덕사 금속활자로 찍었던 《慈悲道場懺法集解》의 내용을 여백의 여러 곳에서 筆寫하고, 欄上의 여백에 단어를 설명하거나 주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3) 삼성 리움미술관 소장본

이 책은 보물 제 937호<그림 33>로 지정된 것으로 권10의 영본 1책만이 折帖의 형태이다. 판식을 보면 邊欄은 上下單邊에 無界이며, 상·하간의 높이는 25.5cm정도이다. 전면 20행 13자로 배열되어 있으며 1장을 1면 5행씩 折帖하였다. 卷末에는 ‘冊主信談’이란 묵서와 뒷면에 ‘正德元年丙寅(1506)十月日 晉將元卷傳受信談 ‘이란 墨書識記가 있어, 고려말 간행된 판에서 조선시대에 인출간 것으로 알 수 있다.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에 의하면 해당자료는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며 그 근거로 고려 太祖의 謂인 ‘建’, 定宗의 謂인 ‘堯’의 兼避諱자인 ‘饒’, 穆宗의 謂인 ‘誦’에 각각 缺劃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편 1988) 맨 아래부분의 우측에는 ‘大慈悲道場懺法變相’의 變相名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 毗婆戶佛부터 彌勒尊佛까지 過去七佛과 彌勒佛을 포함한 8如來의 佛像圖가 새겨져 있다.

(4) 호림미술관 소장본

이 책은 보물 제 1170호로 지정된 것으로, 권1-3 영본 1책이다. 판식은 上下單邊에 상·하간 높이는 25.4cm에 계선이 없으며 全葉 20행 13자에 註雙行으로 배열되어 있다. 전체 크기는 29.2c×17.4cm이다. 본문에 고려 태조의 이름인 ‘建’ 자와 그 兼避字인 ‘健’ 자 등에 결획

이 나타나고 있어 고려시대 간행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보물 제875호(와이엔텍 소장)와 같은 것으로, 권10의 권말 刊記에 의해 고려 1352년(恭愍王 1) 10월 守閑·信珪 등이 化主로 참여하고 正西·正昭, 若琳, 郎將 南宮伯, 別將 柳猛 등이 시주하였으며 了心·達云·省朱 등의 刻手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IV. 맷음말

본 연구는 고려시대 간행된 불교 경전에 포함된 판화와 관련한 개괄적인 현황을 세기별로 살펴보고, 각 경전별로 그 저본이 될 만한 중국의 판화들을 함께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고려시대 두 번에 걸쳐 완성된 대장경에 포함된 판화들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해인사에는 《華嚴經》은 周本 80점(5점 중복), 晉本 12점을 비롯하여 《豫修經》 3종 44 점의 판목이 현전한다. 송광사에도 大藏都監에서 간행된 《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에 판화 1점이 전한다. 또한 초조대장경 중 현재 일본 남선사에는 송 태종의 御製로 제작된 시문집인 《御製秘藏詮》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권1~10까지 50개의 판화가 권11~20까지 중복해서 사용되었으며, 권21에는 佛傳圖 형식의 판화가 3점 포함되어 있어, 이후 釋迦八相圖 등의 도상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언급한 자료 이외의 고려시대 간행 불경 판화를 세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 12종 19점 가운데, 11세기에는 1종 2점, 12·13세기에는 각각 2종 2점씩이 간행되었으며 14세기에 간행된 불경 판화가 6종 13점으로 가장 많았다. 간행자들 대부분은 풍부한 財力を 바탕으로 한 불교계 귀족층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전주, 남원과 같은 지방판판본도 확인된다.

고려시대에는 중국 각지에서 유입된 불경 판화의 모티브를 차용하면서도 고려인들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독창적인 도상을 만들어 내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특히 고려시대 목판으로 간행된 불경 판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해당 도상이 경전의 내용을 설명하는 지표가 됨과 동시에 조선 초기 제작된 다양한 불경 판화의 원형을 제공해주고 있어 그 시원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오구라 콜렉션 한국문화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남권희. 2002.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청주: 고인쇄박물관.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8.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87'지정편). 서울: 동관리국.
- 송광사성보박물관. 2004. 『송광사 불서 전시 도록』. 순천: 송광사.
- 해인사성보박물관. 2008.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 誓願』. 합천: 해인사.
- 허홍식. 1984. 『韓國金石全文』(中世下). 서울: 아세아문화사.
- 周心慧. 1998. 『中國佛教版畫[全集]』 1-4. 浙江: 浙江文藝出版社.
- 小野玄妙. 1936. 『佛書解說大辭典 別卷』. 東京: 大同出版社.
- 寧夏大學西夏研究中心, 國家圖書館, 甘肅五涼古籍整理研究中心 [共]編; 史金波, 陳育寧 主編. 2005. 『中國藏西夏文獻』 5(北京編). 阿勒泰: 甘肅人民出版社·敦煌文藝出版社.

〈기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해제 참조.

〈논문〉

- 권지연. 2004. 海印寺 所藏 佛說預修十王生七經 研究. 『국제비교문화』 12(1): 1-43.
- 김자현. 2011. 日本 南禪寺 소장 《御製秘藏詮》의 《御製佛賦·御製詮源歌》 版畫 研究. 『미술 사학』, 25: 35-68.
- _____. 2016. 天安 廣德寺 소장 《父母恩重長壽胎骨經合部》 연구. 『불교미술』, 27: 57-81.
- 남권희. 2017. 고려시대 간행의 수진본 소자 총지진언집 연구. 『서지학연구』, 71: 323-363.
- 박은경. 2013. 동아대학교 함진재 소장 海印寺 寺刊板 印經變相板와의 조사현황과 특징. 『석당 론총』, 57: 71-107.
- 석혜영. 2018. 고려시대 초조대장경 《어제비장전》 관화의 내용과 의미. 『미술사학보』, 50: 195-220.
- 이성미. 1986. 高麗初雕大藏經의 《御製秘藏詮》 版畫—高麗初期 山水畫의 一研究. 『미술사 학연구』, 169-170: 14-70.
- 유부현. 2010. 初雕藏 《御製秘藏詮》 版畫의 底本과 板刻에 대한 研究. 『서지학연구』, 45: 235-258.
- _____. 2010. 《御製秘藏詮》 大藏經 板本의 文字異同과 校勘. 『서지학연구』, 47: 57-92.
- 장충식. 1982. 韓國 佛教版畫의 研究(I). 『불교학보』, 19: 275-306.
- _____. 1994. 高麗의 文化와 大藏經 版畫 : 華嚴經 版畫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1: 193-212.
- 전혜봉. 1976. 初雕大藏經의 現存本과 그 特性. 『대동문화연구』, 11: 167-239.
- 殷 博. 2014. 莫高窟第85窟善財童子五十三參初探. 『敦煌研究』, 144(2): 26-33.

- 김자현. 2006.『海印寺 寺刊板 60華嚴經 變相版畫 研究』.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 박해순. 1995.『高麗 佛教版畫의 연구 : 海印寺 周本 80華嚴變相圖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회화학과.
- 배찬노. 2005.『高麗時代의 木版畫와 그 實用』. 석사학위 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 석혜영. 2016.『初雕大藏經 《御製秘藏詮》과 高麗時代 佛經版畫의 刊行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현정보학과
- 심성미. 2004.『海印寺 80華嚴經 變相 版畫 研究』. 석사학위 논문, 경주대학교 대학원 문화재학과.
- 임기영. 2009.『海印寺 寺刊板殿 所藏 木板 研究』. 박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현정보학과.
- 임병중. 1992.『高麗와 朝鮮時代의 佛教版畫에 대한 史的 比較考察 : 海印寺 및 松廣寺 變相版畫를 中心으로』.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 陳昱全. 2009.『北宋 《御製秘藏詮》版畫研究』. 碩士學位論文, 國立臺灣師範大學美術研究所.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ook〉

- Haein Temple Museum. 2008. Haein Temple Special Exhibition : The Vow. Hap-cheon: Haein Temple.
- Heo, Herung-Sik. 1984. *Korea Golden Stone Full Text..* Seoul: Aseamunhwasa.
- Ministry of Culture and Public Affairs Cultural Property Bureau. 1988. *Specified report of movable cultural property.* Seoul: The same authority.
- National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 2005. *Korean cultural assets of Ogura Collection.* Dae-jeon : National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
- Nam, Kwon-Hee. 2002. *Records culture research Koryo-dynasty.* Cheong-ju: Ancient printing museum.
- Ono genmyō. 1936. *Buddha Solution Ancient Greek Annex.* Tokyo: Datong Publishing Company.
- Songgwang Temple Museum. 2004. *Songgwang Temple Buddhist Art Exhibition.* Sun-cheon: Songgwang Temple

- Xixia University Xixia Research Center, National Library, Gansu Wuliang Ancient Books Organizing Research Center [Total] Edit ; Shi Jinbo, Chen Yuning Chief editor. 2005. *Chinese Xixia literature 5(Beijing)*. Zhangzhou: Gansu People's Press-Dunhuang Literature and Art Publishing House.
- Zhou Xinhui. 1998. *Chinese Buddhist scriptures 1-4*. Zhejiang: Zhejiang Literature and Art Publishing House.

〈Etc〉

<http://www.heritage.go.kr>

〈Article〉

- Bae, Chan-No. 2005. "Woodblock printing of Goryeo dynasty era—focusing on Koryo tripitaka(Taejang'kyong) and wood printings of Korea and Japan."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Chen Yu-quan. 2009. "A Study on Northern Song Woodblock Prints Yuzhi Mizangquan." Master's Thesis,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Art Research Institute.
- Chon, Hye-Bong. 1976. "The Extant Original Fragments and Characters of the First Edition of the Tripitaka." *Journal of Eastern studies*. 11: 167–239.
- Jang, Choong-Sik. 1982. "A Study on the Korean Buddhist Woodcut Prints(I)." *Buddhist Literature*. 19: 275–306.
- Jang, Choong-Sik. 1994. "Goryu Culture <Daejang-Gyeong Woodcut and Hwaweom-Gyung Woodcut>." *Journal of Korean cultural history*. 1: 193–212.
- Kim, Ja-Hyun. 2006. "A Study on the Haein temple(海印寺)—published prints of sixty volumes of Avatamsaka Sutra depiction."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 Kim, Ja-Hyun. 2011. "Studies on Engraving Prints in Eojebijangjeon(including Eojebulbu and Eojejeonwonga) of Nanzenji Temple in Kyoto, Japan." *Art History*, 25: 35–68.
- Kim, Ja-Hyun. 2016. "A Study on Bumo-eunjung-jangsu-taegol-gyeong-hapbu(父母恩重長壽胎骨經合部) in Gwangdeok Temple in Cheonann." *Buddhist art*, 27: 57–81.
- Kwon, Chee-Yun. 2004. "The Scripture of the Ten Kings from Haein-sa: An

- Overgrown Underworld Pantheon in the Koryo dynasty." *Comparative Korean Studies*, 12(1): 1–43.
- Lim, Byung-Jung. 1992. "A Historical Comparative Study on the Buddhist Prints in Koryo and Yi-Dynasty—Centering around the Prints in Haein Temple and Songkwang Temple."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 Lim, Kee-Young. 2009. "A Bibliographic Analysis of the Woodblocks at Saganpanjeon (寺刊板殿) in the Hae-In Temple(海印寺)." Doctoral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Nam, Kwon-Hee. 2017. "An Analysis of Chongji-Darani's Small Size Edition Carved in small letters published in Goryeo Period."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71: 323–363.
- Park, Eun-Kyung. 2013. "The Research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illustrations of Woodblock printing in Temple-published Edition of Hae-in temple Housed in Dong-A University Hamjinjae." *Journal of sokdang academic research of traditional culture*. 57: 71–107.
- Park, Hae-Sun. 1995. "Study on Buddhist Engraving of Koryo Dynasty : Centering on 'Ju Bon 80 Whaum Byunssangdo in Hae In Temple.'"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 Shim, Sung-Mi. 2004. "Study on the wood block prints of 80 avatamsaka sutra in possession of Buddhist temple Haein." Master's Thesis. Gyeong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 Suk, Hae-Yung. 2016. "The researched Chojo Tripitaka Koreana <Uhjebijangjeon(御製秘藏詮)> and Buddhist Scripture engravings that are published in Goryeo Dynasty" Doctoral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 Suk, Hae-Yung. 2018. "The Content and Significance of Woodcut Prints in the Text 'Eojebijangjeon' from the Goryeo-Period First Edition of the Tripitaka Koreana." *Korean Bulletin of Art History*. 50: 195–220.
- Yi, Song-Mi. 1986. "Korean Landscape Woodcuts from an Imperial Commentary (Yo-chin Pi-tsang-ch'uan) of the 1st Edition of the Tripitaka Koreana."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169, 170: 14–70.
- Yin Bo. 2014. "A Preliminary Study on the Pilgrimage of Sudhanakumara in Mogao Cave 85." *Dunhuang Research*. 144(2): 26–33.

Yoo, Boo-Hyun. 2010. "A Difference of Letters, Comparision, and Modification for the Panbon of Tripitaka, Eojebijangjeon."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47: 57–92.

Yoo, Boo-Hyun. 2010. "The Study of the Base Book and Engravings of the Woodcuts of Eojebijanggeon, the First Tripitaka Koreana."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ibliography*, 45: 235–258.